2007년도 대입 수시 2학기 183개대 16만 7,433명 모집

주요내용

다음달 8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2007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에서 광주·전남 17개 대학이 1만4천428명을 뽑는 등 전국 183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44.4%인 16만7천433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0일 발표한 '2007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은 183개대 16만7천433명으로 전년도의 178개대 15만6천531명에 비해 1만902명 증가했다.

이는 각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수시모집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주대 1천147명, 동신대 1천278명, 목포대 964명, 전남대 2천273명(여수 626명, 광주 1천647명), 조선대 2천561명, 호남대 1천14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국·공립이 32개대 3만2천339명(19.3%), 사립이 151개대 13만5천94명(80.7%)이고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이 123개대 6만5천91명(38.9%), 특별전형이 180개대 10만2천342명(61.1%)이다

특별전형은 취업자전형이 28개대 852명, 특기자전형이 121개대 6천572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이 174개대 7만4천948명, 산업대학특별전형이 8개대 1천811명, 농어촌학생(정원외)전형이 93개대 4천470명, 실업계고교졸업자(정원외)전형이 80개대 3천340명, 재외국민(정원외)전형이 93개대 3천417명,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전형이 33개대 751명이다.

전체모집정원의 44.4%

작년보다 1만902명 증가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요강 '주의사항' 체크를

주요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교생활기록부, 면접 및 구술·논술·실기 고사 등을 활용하며 고교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수시모집의 특성상 특별전형의 경우 특기나 소질 등에 따른 실기고사와 입상실적, 자격, 추천서 등 별도의 자료가 활용된다.

아울러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일부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8일부터 인터넷 및 일반 접수로 이뤄지며 인터넷과 일반원서접수를 병행하는 곳이 88개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곳이 86개대, 일반원서로만 접수하는 곳이 9개대이다.

원서 접수 및 전형은 12월12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12월17일, 합격자 등록은 12월18~19일이다.

시험 일정이 다른 여러 대학에 복수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수시 1학기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사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에 지원할 수 없다. 또 수시 2학기 모집에 원서를 내서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과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 참조하면 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007 대학입학 전형 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비 고
수시 2학기	• 원서접수 및 전형: '06 9.08~12.12	
정시 (가.나.다)	• 원서접수:'06 12.21~12.27 • 전형기간: -가군: '06 12.28~'07 01.11 -나군: '07 1.12~1.22 -다군: '07 1.23~2.2	• 미등록 충원합격 '07 2.14 • 미등록 충원등록 '07 2.15
추가모집	'07 2.17~28 기간중 접수·전형·합격 자 발표. 등록은 대학 자율결정 시행	

2007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광주·전남 17개 대학이 1만4천428명을 뽑는 등 전국 183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44.4%인 16만7천433명을 선발한다. 사진은 지난 6월 광주 동신여고 학생들이 모의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 광주 1,647명 여수 626명 선발

조선대·광주대 특기자·취업경력자 우대

광주·전남 대학은

광주·전남 17개 대학은 2007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학업우수자, 고교장 및 사회 지도자 추천, 특기자 전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평가비율 반영방법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응시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대학 수시 2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광주대**=일반전형으로 일반학생 710명을 선발하고 특성화고교특별전형으로 실업계고교 출신자 376명을 뽑는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유아교육과 남학생 4명, 선·효행 및 봉사상 수상자 6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8명 등을 선발한다.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컴퓨터 4명, 체육 10명, 음악 6명, 외국어 5명, 미술 9명, 문학 4명 등을 뽑는다.

◇**광주여대**=일반전형으로 608명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장 추천자 12명, 자격증 및 입상포상자 6명, 만학도 5명,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12명 등을 뽑는다.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무용 8명, 영어 2명 등을 선발한다.

■광주·전남 대학별 모집인원

대 학		모집인원
광신대		57
광주대		1,147
광주여대		731
남부대		555
대불대		940
동신대		1,278
명신대		149
목포가톨릭대		70
목포대		964
목포해양대		309
순천대		1,065
전남대	여수	626
	광주	1,647
조선대		2,561
초당대		858
한려대		384
호남대		1,014
호남신학대		73
계		14,428

◇**동신대**=1차(9월 12~15일)와 2차(10월 10~16일)를 통해 총 1천278명을 뽑는다. 1차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300명을 선발하고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담임교사 및 자기추천자 138명, 지역출신자 75명 등을 뽑는다.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으로 실업계고교 출신자 10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연기·영상·방송 4명, 체육 32명, 사진 5명 등을 뽑는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스튜어디스학과에 한해 학생부 80%, 면접 20%로 선발한다. 단 한의예과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이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 626명, 광주캠퍼스 1천647명 등 모두 2천273명을 선발한다. 여수캠퍼스의 경우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548명, 소년소녀가장 4명, 국가유공자 2명 등을 뽑는다. 광주캠퍼스는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학교장 및 교사추천자 1천350명, 복수학위 희망자 30명, 국가유공자 9명, 간호학과 남학생 4명 등을 뽑는다.

◇**조선대**=일반전형으로 2천158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으로 실업계 고교 출신자 100명을 뽑고,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자기추천자 70명, 간호학과 남학생 5명을 선발한다.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미술 33명, 체육 110명, 무용 15명을 뽑고,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취업경력자 60명을 선발한다.

◇**호남대**=1차(9월8~15일)와 2차(10월9~16일)를 통해 1천14명을 뽑는다. 1차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일반학생 320명,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추천자 265명을 각각 선발한다. 2차에서는 일반전형으로 일반학생 160명,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으로 추천자 140명, 만학도 및 주부 17명 등을 뽑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주요대학 모집 요강

대 학	정 원	학생부	기타서류	면접 및 논술	비 고
경희대	서울 680명 수원 480명	40% 1단계 70%		인적성 30% 논 술 30% 1단계 인적성 30% 2단계 면 접 20%	※교과우수자(II)전형
고려대	서울 1,419명 서창 501명	서울 25% 서창 80%	서울 5% 서창 20%	서울 70%	
동신대	수시 2-1 688명 수시 2-2 590명	100% ※스튜어디스학과 80%		※스튜어디스학과 20%	※담임교사 추천전형 ※지역출신자 전형
서강대	수시 2-1 349명 수시 2-2 417명	1단계 60%		1단계 40% 2단계 전공구술 20%	※학교장추천전형
서울대	지역균형 800명 특기자 683명	1단계 100% 2단계 80%	2단계 10%	2단계 면접구술 10%	※지역균형전형
성균관대	794명	50%	자기평가서 10%	논술 40%	※일반학생전형
숙명여대	776명	1단계 100% 2단계 40%		2단계 논술 60%	
연세대	서울 918명 원주 428명	60%	15%(자기소개서 등)	면접구술 25%	※일반우수자전형
이화여대	수시 2-1 200명	50%	39%(추천서 등)	구술면접 20%	※고교추천전형
중앙대	수시 2-1 702명 수시 2-2 738명	인문계 30% 자연계 40% 전계열 30%		인문계 논술 70% 자연계 논술 60%	※일반학생전형
전남대	여수 626명 광주 1,647명	1단계 100% 2단계 60%		2단계 심층면접 40%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 전형 ※국가 유공자 전형
조선대	2,561명	일반전형 (인문·자연계) 67%		33%	
호남대	1,014명	일반전형 100%			
한국외대	697명	50%		논술 50%	※외대프런티어(II)전형
한양대	1,470명	1단계 100% 2단계 40%	2단계 10%	2단계 50%	※21세기 한양인(II)전형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구 분	국공립	사 립	합계
100%	군산대, **목포대**, 상주대, 안동대, 충주대 〈5개교〉	가야대, 건동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원대, 경일대, 경주대, 고신대, 관동대, **광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신대, 대전대, **동신대**, 동양대, **명신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서남대, 서원대, 세종대, 순천향대, 신경대, 아시아대, 예수대, 용인대, 위덕대, 전주대, 진주국제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탐라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려대**, 한북대, 한일장신대, 한중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48개교〉	53
80%이상	경상대, 서울 산업대, **순천대**, 전북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충남대, 한밭대 〈8개교〉	감리교신대, 강남대, 경운대, 계명대, 고려대(서창), **광신대**, **남부대**, 동국대(경주), 삼육대, 상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세명대, 원광대, 을지의대, 중부대, 한림대 〈17개교〉	25
60%이상	경북대, **전남대** 〈2개교〉	가천의과학대, 경북외대, **광주여대**, 금강대, 대구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루터대, 명지대, 백석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울산대, **조선대**, 한라대, 한성대, 협성대 〈23개교〉	25
50%이상		극동대, 대전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덕성여대, 부산장신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민대, 영남신학대, 한서대 〈10개교〉	10
40%이상		숙명여대, 아주대, 칼빈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5개교〉	5
30%이상		중앙대(서울), 중앙대(경기) 〈2개교〉	2
30%미만		고려대(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 **호남신학대** 〈3개교〉	3

■면접구술고사 반영비율

구 분	국공립	사 립	합계
20%이상	경북대, 경상대, 서울산업대, **순천대**, **전남대**, 창원대, 충남대 〈7개교〉	가천의과학대, 경북외대, **광신대**, **광주여대**, 극동대, 금강대, **남부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진대, 덕성여대, 루터대, 명지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민대, 세명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동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의대, **조선대**, 중부대, 칼빈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협성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호남신학대** 〈45개교〉	52
10%이상	전북대, 진주산업대, 한밭대 〈3개교〉	감리교신대, 경운대, 계명대, 동국대(경주), 삼육대, 성결대 〈6개교〉	9

■논술고사 반영비율

구 분	국공립	사 립	합계
20%이상		강남대, 고려대(서울), 대전가톨릭대, 동국대(서울),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중앙대(서울), 중앙대(경기) 〈9개교〉	9

"희망대학 3~5곳 선정 상향지원"

지역고 출신자·교장 추천자·학생회 임원등

대학별 독자 기준만 충족시켜도 진학 가능

지원전략 '이렇게'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성적의 재수생을 피하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위주의 지나친 하향지원은 삼가야 한다.

◇**지원가능대학 3~5곳 선정**=모집정원수가 많고 앞으로 정시모집 기회가 한번 더 남아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진학 희망 대학을 약간 상향 조정해 3~5곳을 선정·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면접·논술시험이 합격 여부를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여부를 빨리 결정한 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춰 준비하도록 한다.

수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수능성적 최저등급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은데다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수능일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수능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

◇**전형 유리한 대학 복수 선택해 지원기회 최대한 활용**=전형방법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학생부 성적이나 구술·면접 성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학의 전형 방법을 자세히 살펴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고 복수 지원의 기회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접속하면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학지도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으로부터 무료 진학·진로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심층면접·논술 철저 대비**=수시모집에서는 심층면접으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는 학생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대학이 1단계에서 3~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심층면접과 논술·구술고사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심층면접과 논술고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과의 학문적 성격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TV토론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시사문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토론식 면접의 경우 수험생 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놓아야 한다.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는 직접 작성**=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해줄 경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없어 면접시험을 망칠 수 있다. 면접시험시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 내거나 남들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 등을 쓰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글이며 학업계획서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학업계획, 졸업 후 희망진로 등의 내용을 담아놓으면 된다. 형식이나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쓰고 관련된 질문에 소신껏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학별 전형 '각양각색'

교과성적 우수자, 지역고교 출신자, 학교장·교사 추천자, 학생회 임원 및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학생….

2007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대학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뽑는 특별전형의 비중이 크다. 특별전형 인원은 180개대 10만2천342명으로 올해 전체 대입 정원 37만7천458명의 27.1%에 이르고 있다.

문학,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자 전형으로 6천572명을 선발할 뿐 아니라 대학마다 '독자기준'에 따라 40개 분야에 걸쳐 7만4천948명을 뽑는다. 대학별 독자 기준만 충족시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학 독자 전형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학교장·교사 추천으로 83개대가 2만2천261명을 선발한다. 또 49개대가 교과성적(내신)으로 1만8천114명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57개대가 지역고교 출신자 5천578명을, 10개대가 인문계고교 출신자 4천939명을 각각 선발한다. 66개대는 국가유공자 및 자손 783명을, 10개대는 종교인 및 자녀 323명을 각각 뽑는다.

46개대가 만학도 및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모두 742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35개대는 사회봉사자 및 자녀를 1천307명을 모집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선발인원도 57개대 1천974명에 이르고 선행·효행자 선발인원은 18개대 579명이다. 26개대가 자격증소지자 726명을 모집하고 10개대는 323명의 종교인을 뽑는다.

학생회 임원이나 리더십을 갖춘 재학생을 뽑는 대학은 29개대(2천345명)이고 공무원 및 교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곳은 19개대(711명)이다.

아울러 대안학교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수학 과학 우수자, 어학우수자, 가업계승자, 실기 우수자, 선원자녀, 해외유학생 등에게도 대학별 독자적 기준을 통한 특별전형의 문이 열려 있다.